# 국제 금융 속보

국제금융센터
Flash News
2021. 10. 1
해외동향부 (제 6014)

■ **주요 뉴스: 미국 의회, 임시 예산안 통과로 셧다운을 피할 전망. 부채한도 확대는 미지수**

○ 연준 의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독일 9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4.1% 올라 EU 집계 방식(HCPI) 이후 최고치

○ 중국 국가통계국 9월 제조업 PMI, 49.6으로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50 하회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인플레이션 및 부채한도 확대 문제 등으로 위험회피 강화**
**주가 하락[-1.2%], 달러화 약세[-0.1%],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이 주요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소매 및 여행관련주의 약세 등으로 소폭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간 고용지표의 부진 등이 영향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는 0.6%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월말 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배경
독일은 9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 등으로 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85.2원, +0.5원) 보합, 한국 CDS 보합

| | | 9/30일 | 9/29일 | 전일대비 |
|---|---|---|---|---|
| 주가 | 미국 | 4,307.5 | 4,359.5 | -1.19% |
| | 유럽 | 454.81 | 455.03 | -0.05% |
| | 중국 | 3,568.2 | 3,536.3 | 0.90% |
| | 일본 | 29,453 | 29,544 | -0.31% |
| | 한국 | 3,068.8 | 3,060.3 | 0.28% |
| 환율 | 달러지수 | 94.28 | 94.34 | -0.07% |
| | 유로화 | 1.1580 | 1.1598 | -0.16% |
| | 엔화 | 111.29 | 111.96 | 0.60% |
| | 위안화 | 6.4448 | 6.4708 | 0.40% |
| | 원화 | 1,184.0 | 1,181.8 | -0.19% |

| | | 9/30일 | 9/29일 | 전일대비 |
|---|---|---|---|---|
| 국채 금리 10y | 미국 | 1.49% | 1.52% | -3bp |
| | 독일 | -0.20% | -0.21% | 1bp |
| CDS 5y | 한국 | 19bp | 19bp | 0bp |
| | 중국 | 46bp | 47bp | -1bp |
| 위험 지표 | EMBI+ | - | 369 | - |
| | VIX | 23.14 | 22.56 | 2.57% |
| 원자재 | WTI유 | 75.03 | 74.83 | 0.27% |
| | 구리 | 410.7 | 419.9 | -2.20% |
| | 금 | 1,757.0 | 1,726.4 | 1.77% |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의회, 임시 예산안 통과로 셧다운을 피할 전망. 부채한도 확대는 미지수**

○ 상원은 찬성 65대 반대 35로 승인.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하원에서 처리하고 백악관에서 서명하면 발효. 공화당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요구한 지출 항목이 이번에 편성되어 협상이 진전을 이루었다고 설명

○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임시 예산안을 찬성 254대 반대 175로 통과. 다만 부채한도 확대 관련해서는 양당 간 이견이 지속. 민주당은 다음 주 상원에서 부채한도 안건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나,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

○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한도 확대 실패로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되면 이는 금융위기 등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 다만 S&P는 과거 사례를 참고 시, 이번에도 기한 내에 부채한도 확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의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파월 의장은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은 통화당국에서 통제할 수 없는 공급 병목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 만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도 부진하다면 통화당국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

○ 시카고 연은 에반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인내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인 공급 병목 등의 문제가 내년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 2%의 인플레이션 목표 유지를 위해서는 저금리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

■ **독일 9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4.1% 올라 EU 집계 방식(HCPI) 이후 최고치**

○ 통계청, 이번 결과는 전월(3.4%) 및 예상치(4.0%) 모두 상회. 경제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공급부족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

■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ECB는 인플레이션을 주시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 센테노 총재는 인플레이션 관련 불확실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며, ECB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 한편 금년 4/4분기에는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EU, 재무장관 회의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 영향을 논의할 방침**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기회복 둔화, 국가별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시적 현상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제시

■ **중국 국가통계국 9월 제조업 PMI, 49.6으로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50 하회**

○ 이번 결과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와 전력 부족 등에 기인. 특히 에너지 소비가 큰 산업의 부진이 심화. Pinpoint 자산운용의 Zhiwei Zhang은 추가 부양책이 없다면 경기둔화는 4/4분기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같은 달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0으로 전월(49.2) 및 예상치(49.5) 상회. 그러나 차이신의 Wang Zhe는 코로나 19 여파와 원자재 공급 차질 등으로 제조업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

■ **일본은행 총재,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

○ 코로나 19 여파로 소비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향후 소비는 코로나 19의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 **멕시코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p 높인 4.75%로 결정. 최근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하지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3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4분기 성장률(확정치): 6.7%, 1/4분기(6.4%), 수정치(6.6%)

○ 미국 9월 4주차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만건): 36.2, 전주(35.1), 예상치(33.5)

○ 중국 국가통계국 8월 서비스 PMI: 53.2, 7월(47.5), 예상치(52.7)

■ **주요 경제 이벤트(10/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개인소득 및 개인 소비지출, 9월 마킷 제조업 PMI

○ 미국 9월 ISM 제조업 PMI,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독일 8월 소매매출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주요국 성장둔화 우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잠재 - Financial Times**
(Stagflation fears intensify in signs of slowing growth)

○ 경제학자들은 최근 물가상승과 델타변이로 인한 성장 둔화를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하며 70년대 오일 쇼크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교를 회피. 하지만 Capital Economics의 Vicky Redwood는 많은 국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보인다고 언급

○ Berenberg의 Kallum Pickering은 전세계적인 공급차질 장기화를 우려. Allianz의 Mohamed El-Erian은 지난 10년과 달리 "stag"와 "flation" 사이에서 중앙은행들의 대응력이 제한되어 통화정책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

■ **중국의 전력난, 여타 국가와 다국적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연결 - WSJ**
(China's Power Crisis Piles More Pressure on Inflation)

○ 중국 정부의 에너지 규제 정책은 각국의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제품에 추가 비용으로 반영. 이에 중국 정부의 대응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 중국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주요 태양 전지판 업체는 비용 상승으로 타격

○ 최종 수요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저가제품을 제공하는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소지. 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국적 기업에는 또 다른 도전

■ **각국 정부, 기후변화 개혁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 시급 - Financial Times**
(Politicians need to be more active when it comes to greenflation)

■ **천연가스 가격, 장기적 수요 예측 난항 등으로 변동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 WSJ**
(Gas Markets Will Get Even More Exciting)

■ **미국 예산안, 비전 제시에 있어 핵심 사안 부재가 가장 큰 문제 - 블룸버그**
(The Reason Biden's Agenda Is in Jeopard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